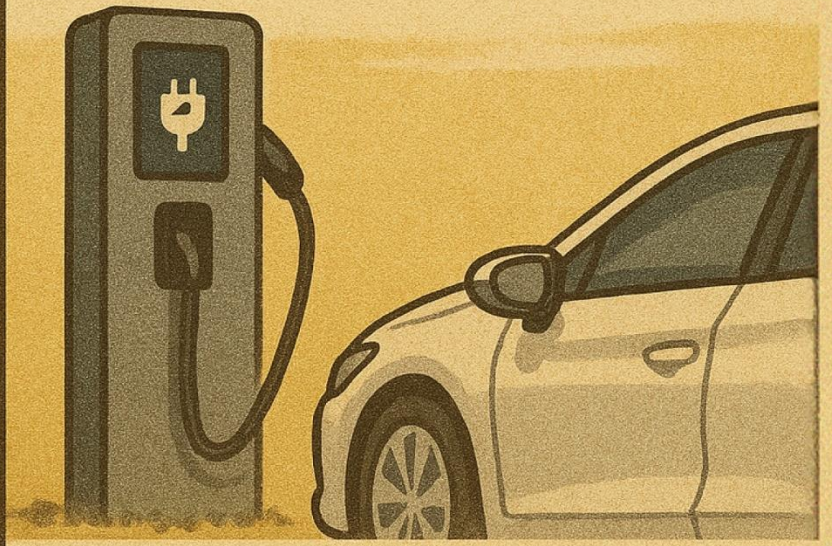
전기차 시대의 청바지

GOLD RUSH

JEANS BUSINESS

ELECTRIC VEHICLE ERA



CHARGING BUSINESS

2025.4.17 _ 2차전지 Neutral Analyst 김현수 hyunsoo@hanafn.com RA 홍지원 jiwonhong@hanafn.com

하나증권

2차전지 Neutral

전기차 시대의 청바지

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

Analyst 김현수 hyunsoo@hanafn.com

하나증권

Contents

Intro.		4
Part 1.	전동화의 당위 및 충전 비즈니스의 중요성	5
Part 2.	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의 속성 : 제조업의 한계	8
Part 3.	전기차 충전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의 중요성	10
Part 4.	급속 충전의 중요성	13
Part 5.	충전 산업의 숨겨진 해자 : 장기 임대차 역량	15
Part 6.	EV 밸류체인 전체로 확장되는 충전 사업의 본질	19
Part 7.	서브 이슈	23
Part 8.	결론	25

하나증권

Intr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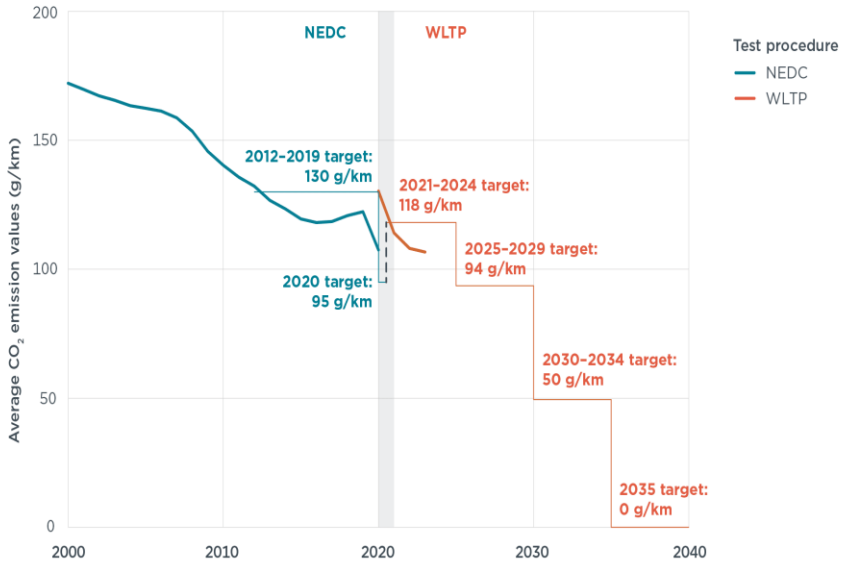
전기차 시대의 청바지

- 골드러시 시대의 승자는 금광업자가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 사업자였다.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는 무엇이 될까.
- 국내 전기차 판매는 2022년 15.8만대, 2023년 15.4만대, 2024년 14만대로 성장 정체 중이다. LGES, 삼성SDI의 매출 역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2024년 YoY -24% 감소했다. 그러나 누적 전기차 보급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전기차 충전 사업자 매출은 2023년 +94%, 2024년 +71%로 가파른 성장세 지속되고 있다(국내 급속 충전 CPO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 기준). 서부 개척자들의 골드 러시 경쟁이 청바지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웠다면, 탈탄소 및 자율주행 전환이라는 큰 물결은 전기차 충전 사업의 현금흐름을 늘리고 있다.
-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충전 '제조업'으로 인식한다. 그러나 충전 사업은 제조와 CPO(Charge Point Operator) 계열 통합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경쟁으로 변화했다. 나아가 제조와 CPO의 통합은 급속 충전과 만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며, 이 때 장기임대차 역량이 숨겨진 해자로서 작동한다.
- 제조+CPO+급속충전 키워드를 갖춘 기업이 장기임대차 역량을 통해 임차료 부담을 최소화 함으로써 공헌이익률을 극대화하고 수직 계열 통합을 완성한다면, 상당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. 이를 인식한 Integrator 들은 이미 앞서가기 시작했다.
- 이처럼 현재의 전기차 충전 사업은 단순 제조가 아닌 전기차 전 밸류체인에 걸쳐있는 종합 비즈니스이며, 그렇기에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가 될 수 있다.
- 산업 개화 초기 단계이므로 아직 확고한 이익 창출 기업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으나, 상기한 키워드를 모두 확보한 기업들 위주로 산업이 성장해나갈 것으로 판단한다.

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외생변수(탈탄소) 및 내생변수(자율주행 및 SDV) 확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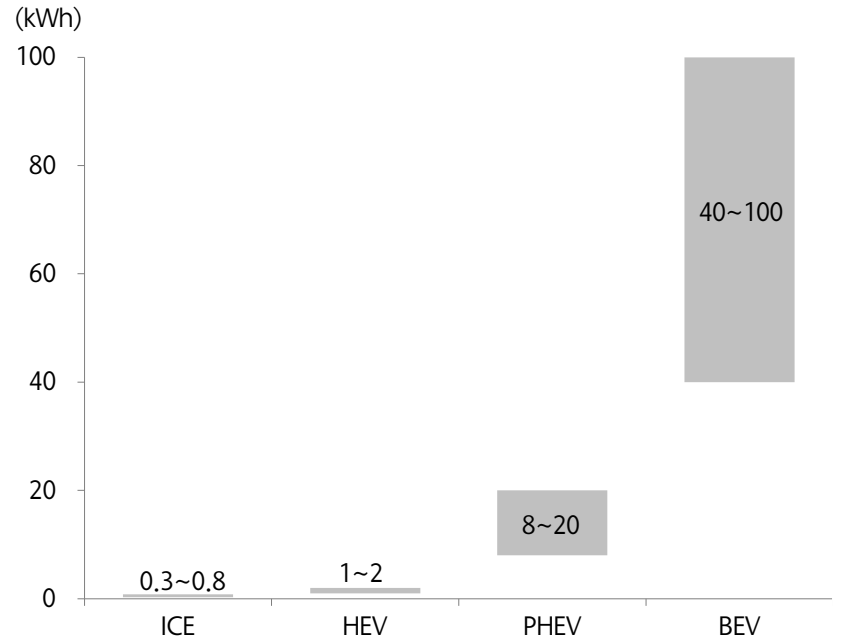
-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정책 불확실성 불구, 2025년 3월 누적 미국 및 유럽 BEV 판매량 YoY +20% 성장세 지속
- 유럽의 CO2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일 뿐 장기 방향성 유지,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외생변수인 탈탄소 정책 기조 확고
- 자율주행 레벨 상승에 따른 전력 소모량 증가 및 중앙제어 ECU 효율성으로 인해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는 전기차가 적합

유럽 CO2 배출 규제 강도



자료: ICCT, 하나증권

파워트레인별 배터리 탑재 용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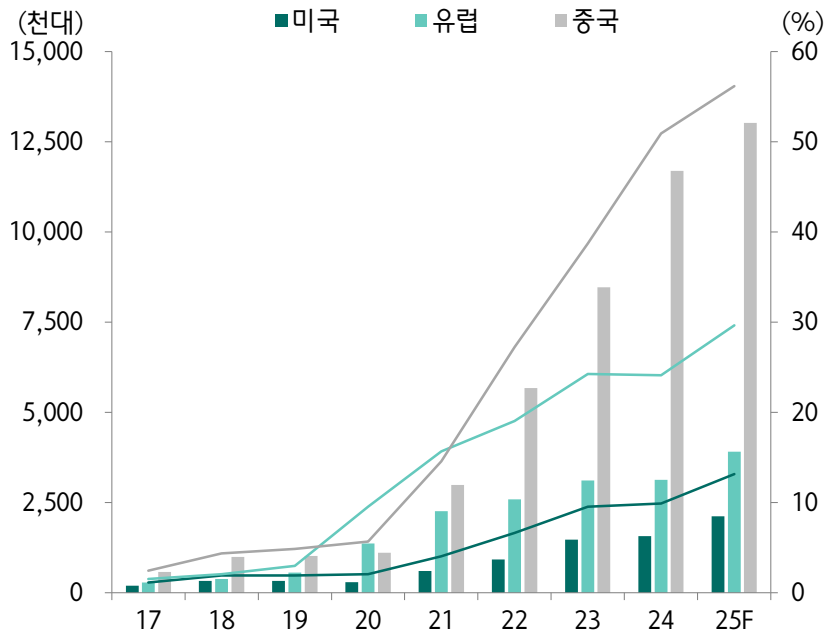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증권

전기차 시대 전환을 위한 필요 조건 : 충전 비즈니스의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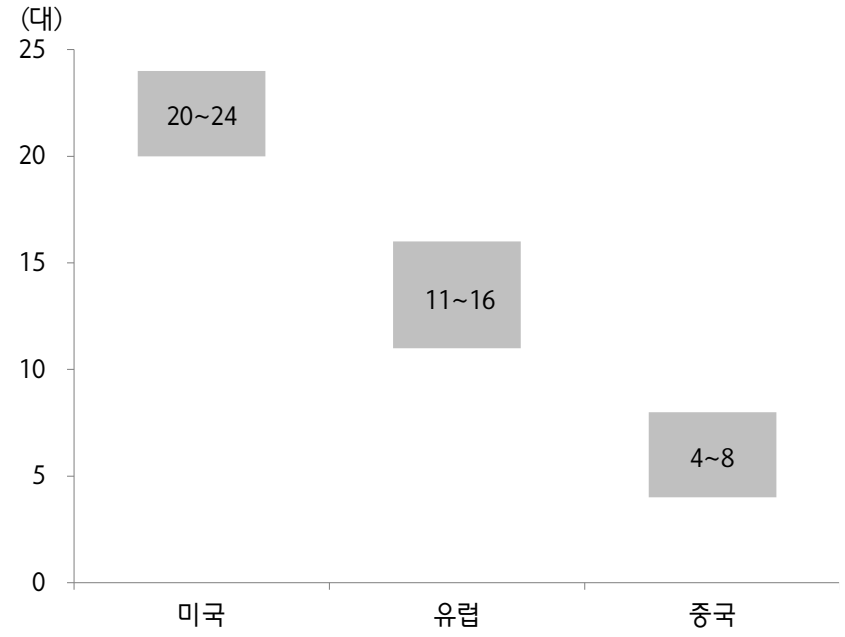
- 최근 8년간 미국/유럽/중국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, 타 지역을 압도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인 중국 전기차 시장
- 차충비(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) : 중국 4~8대, 유럽 11~16대, 미국 20~24대, 전기차 침투율의 차이는 차충비 차이에 상당 부분 기인
- 리튬이온전지의 화학적 한계로 인해 내연기관차 대비 주행거리 확장 어려운 전기차. 따라서 전기차 시대의 필요 조건은 충전 인프라 구축

미국, 유럽, 중국 전기차(BEV+PHEV) 판매대수 및 침투율 추이



자료: 하나증권

미국, 유럽, 중국 차충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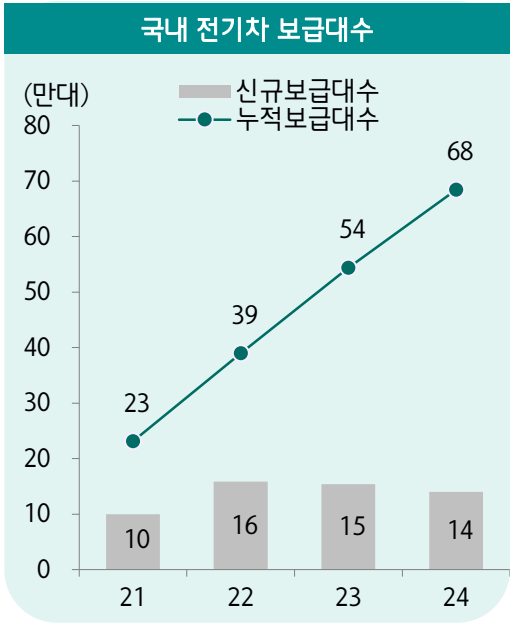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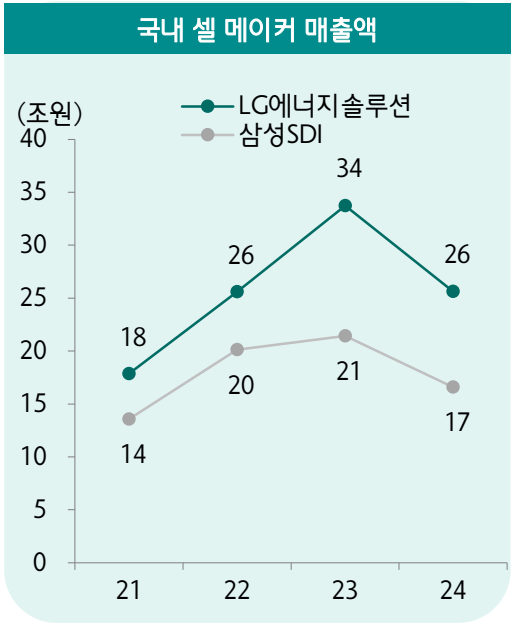
자료: IEA, BNEF,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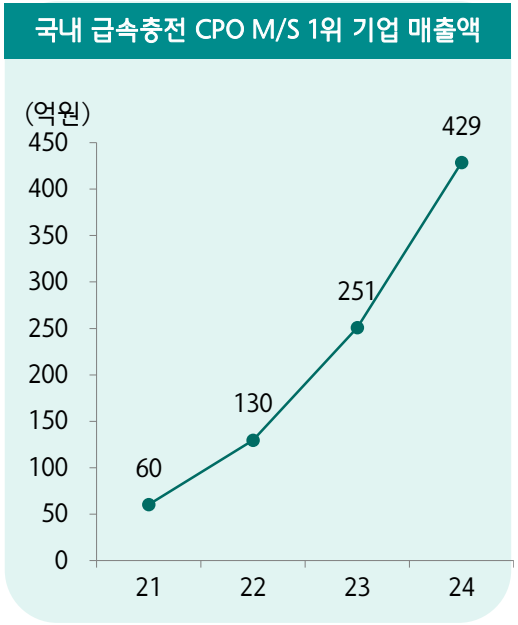
전기차 수요 성장률 둔화 속에서 가파른 성장 지속되고 있는 급속 충전 사업

- 국내 전기차 판매 2022년 15.8만대, 2023년 15.4만대, 2024년 14만대로 성장 정체
- LGES, 삼성SDI의 매출 역시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2024년 YoY -24% 감소
- 신차 판매 대수 성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나 누적 보급대수는 지속 증가
- 전기차 충전 사업자 매출 2023년 +94%, 2024년 +71%로 가파른 성장세 지속(국내 급속 충전 CPO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 기준)

국내 전기차 보급대수, 셀 메이커 및 급속 충전 CPO 사업자 매출 추이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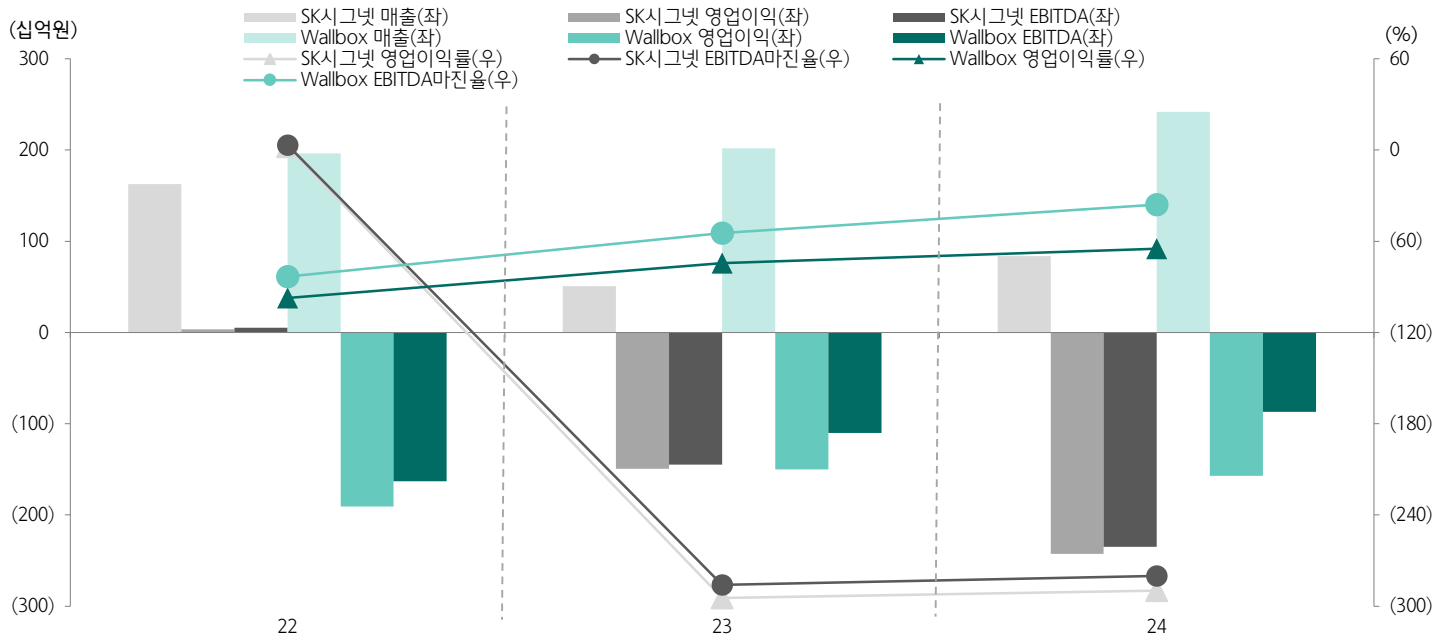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증권

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의 속성 : 제조업만으로는 수익성 불안정, 특히 완속 사업의 한계 뚜렷

-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“전기차 충전 사업”을 “충전기 제조업”으로 인식, 그러나 ‘제조’ 만을 영위하는 기업들 수익성 불안정
- 특히 완속 제조 영역은 진입 장벽 낮아 경쟁 치열, 급속 제조 영역은 품질/인증/레퍼런스 등 진입장벽 높아 소수 사업자(현재 환경부는 3개 회사로부터만 구매) 경쟁 중이나, 그 안에서도 업체별 차별화 뚜렷
- CPO(Charge Point Operator)로 확장하지 못하고 제조업만을 영위해온 SK시그넷(급속 충전), Wallbox(완속 충전) 대규모 적자 지속

SK시그넷, Wallbox 실적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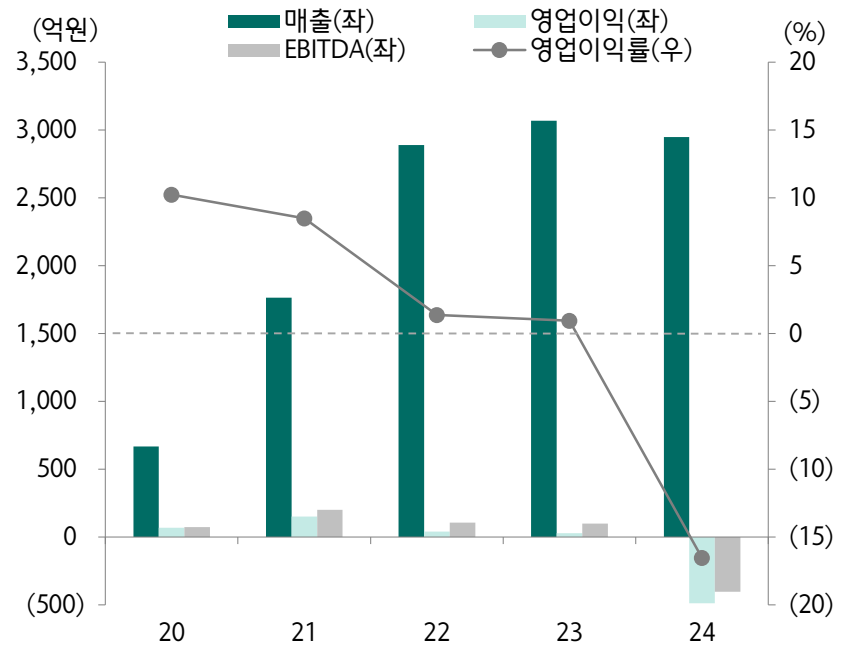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Quantiwise, DART, Bloomberg, 하나증권

전기차 충전 제조업 진출 후 포기 사례 다수

- SK시그넷, 원익피앤이, LG하이비차저 등 충전 제조 전문 기업들 수익성 악화 지속
-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과 함께 충전기 제조 영역 확장 시도 했다가 철수한 KT
- 충전기 제조 사업 진출했으나 경쟁 심화로 철수한 포스코, LS산전(현 LS Electric) 등 다수 사례

원익피앤이 실적 추이



자료: 원익피앤이, 하나증권

충전기 제조업 진출 시도 후 철수한 기업들

kt

SK networks

LS ELECTRI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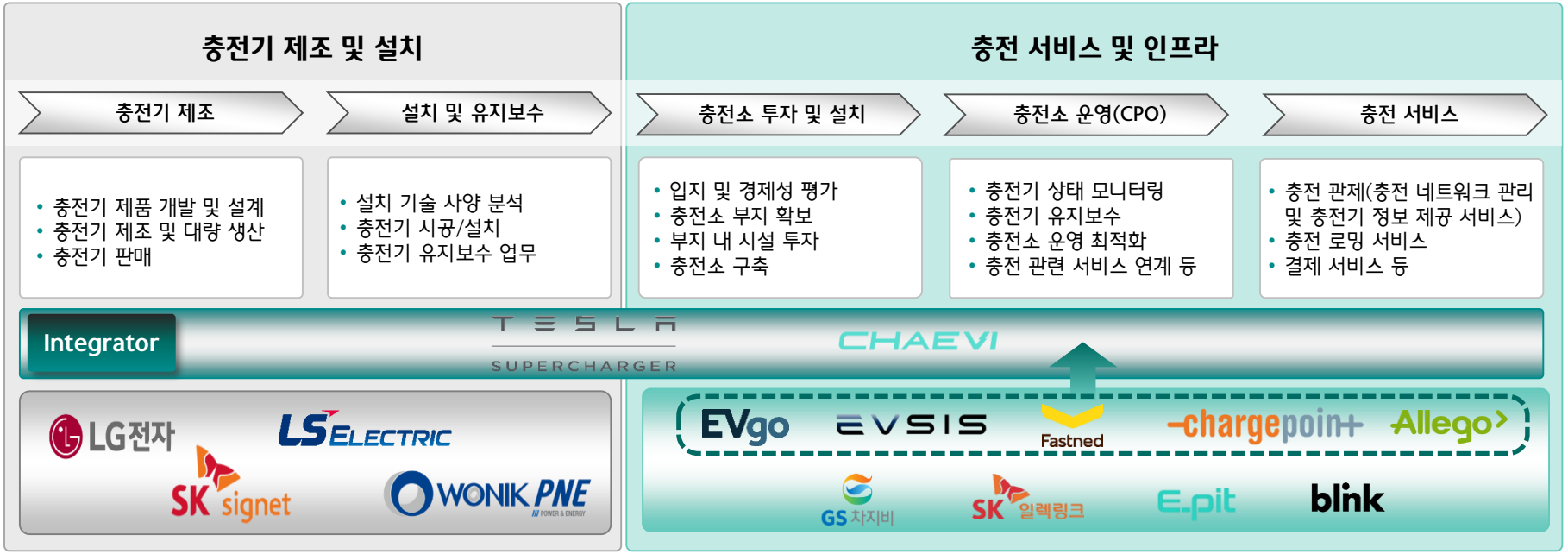
posco

자료: 하나증권

전기차 충전 밸류체인 수직 계열 통합의 중요성

- 전기차 충전 밸류체인은 크게 '충전기 제조 및 설치 사업' 과 '충전 서비스 및 인프라 사업' 으로 구분
- 충전기 제조 및 설치 사업 : SK시그넷, 원익피앤이, LS일렉트릭, LG전자 등
- 충전 서비스 사업 : Fastned, EVgo, Allego, E-pit, SK일렉링크, GS차지비 등
- 충전기 제조 및 서비스 통합사업자 : 테슬라 슈퍼차저, Chaevi

전기차 충전 인프라 밸류체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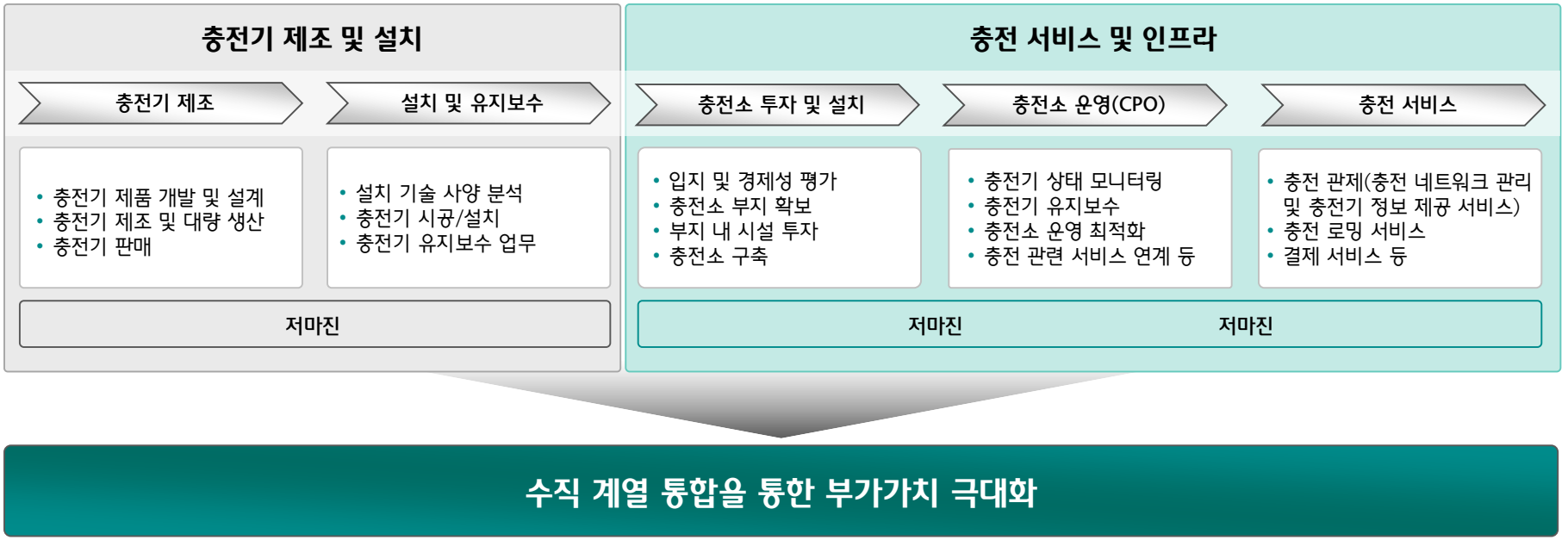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증권

전기차 충전 밸류체인 수직 계열 통합의 중요성

- 충전 제조업은 낮은 진입 장벽 및 경쟁 심화로 수익성 확보 어려운 산업
- CPO(Charge Point Operator)의 경우 경쟁 차별화 요소 있으나 역시 CPO 사업만으로는 한계
- 따라서 제조 및 설치, 그리고 CPO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으로의 수직 계열 통합이 전기차 충전 사업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

전기차 충전 인프라 밸류체인



자료: 하나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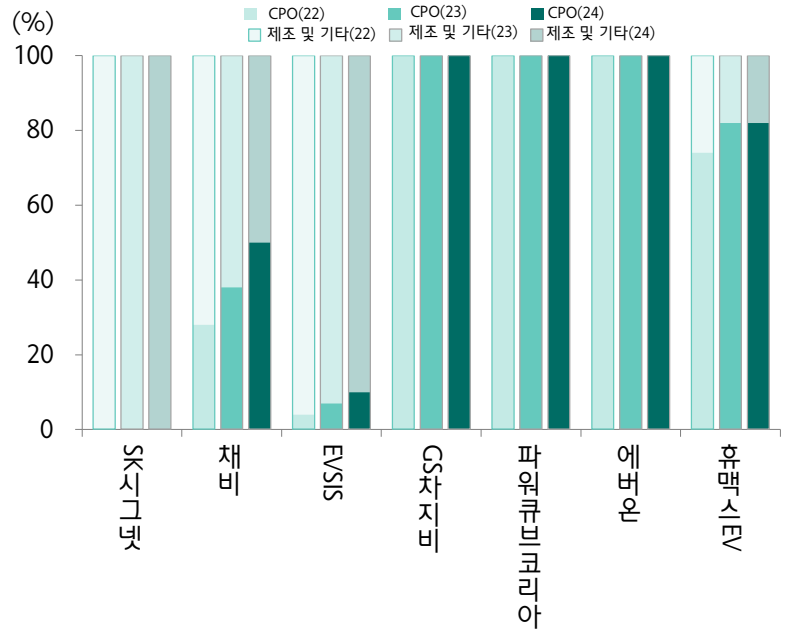
제조에서 CPO로, CPO에서 제조로 사업 영역 확장

- 미국 CPO 기업들(EVgo, Charge Point), CPO 전문 기업에서 충전기 제조 영역으로 사업 확장
- 국내 기업들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수직 계열 통합 노력 지속
- 단,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 제조 혹은 CPO에 매출이 국한돼 있어 온전한 수직 계열 통합 효과 나타나지 않은 상황
- 극히 일부 기업만이 제조와 CPO 매출 비중 균형 이루며 Integrator 지위 확보

사업 영역 확대하는 해외 기업들

자료: 하나증권

기업별 충전소 운영(CPO) 사업 매출비중 추이



자료: 하나증권

급속 충전의 중요성 : 제조+CPO 시너지효과 극대화

- 제조+CPO 수직 계열 통합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급속 충전
- 완속 시장(최근 배터리 용량 증대로 완충까지 10시간 이상 소요)은 Home charge가 주요 타겟
- 제조 역량 크게 요구되지 않는데다, 집에 설치해 '서비스' 역할 미미, 따라서 완속 충전은 CPO 역할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장
- 전기차 충전 밸류체인의 수익성 극대화 전략인 제조+CPO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은 급속 충전 시장

Home charger(가정용 완속 충전기)

자료: Capital O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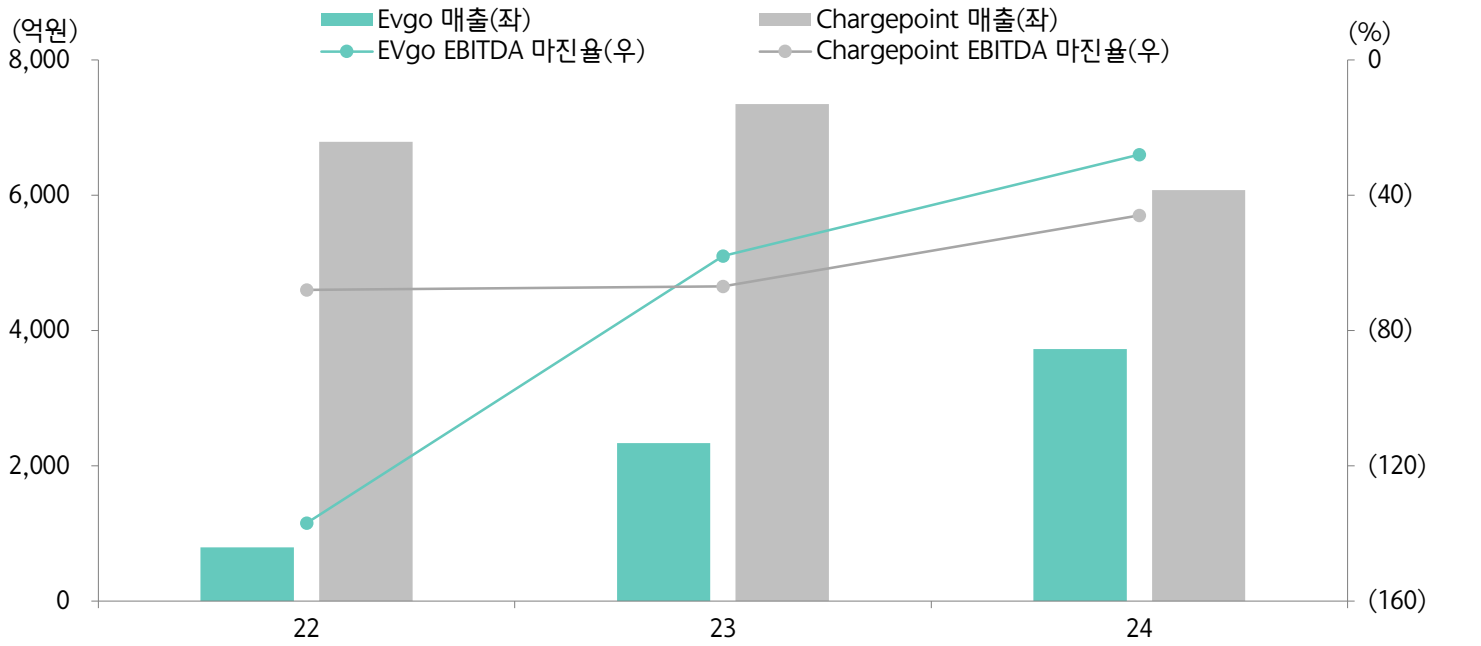
외부 시설 급속 충전기

자료: Danlec Electrical Solutions

제조+CPO 통합 기업 중 완속과 급속의 실적 차이

- 앞서 살펴본 이유로 인해 미국에서도 제조+CPO 통합 기업들 중 급속 충전 기업과 완속 충전 기업 간의 실적 차별화
- 아직 사업 성장 초기 단계로서 급속 및 완속 충전 기업 모두 적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급속과 완속간의 온도차 뚜렷
- 완속 기업은 경쟁 심화로 매출까지 감소하고 있으나, 급속 충전 기업인 EVgo의 경우 매년 매출 증가세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강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

EVgo, Chargepoint 매출 및 EBITDA 마진율 추이



자료: 하나증권

진입 장벽으로서 장기임대차 역량 요구되는 급속 충전 CPO 사업

- 세가지 키워드(제조+CPO+급속)가 맞물리면서 새로운 해자 필요성 증대, 특히 진입장벽으로서 장기임대차 역량이 요구됨
- 급속 충전 CPO 시장은 집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급속 충전 서비스를 20~30분간 제공하는 시장
- 적절한 위치(목)를 선점하는 동시에 30분의 시간가치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여 수익성 극대화 가능(ex. F&B, 영화 등)

일런 머스크의 충전 스테이션 사업 계획

THE ECONOMIC TIMES | News

English Edition ▾ | Today's ePaper

Elon Musk is entering restaurant business as Tesla's all-night diner, theater, charging station are gearing up for grand opening

자료: The Economic Tim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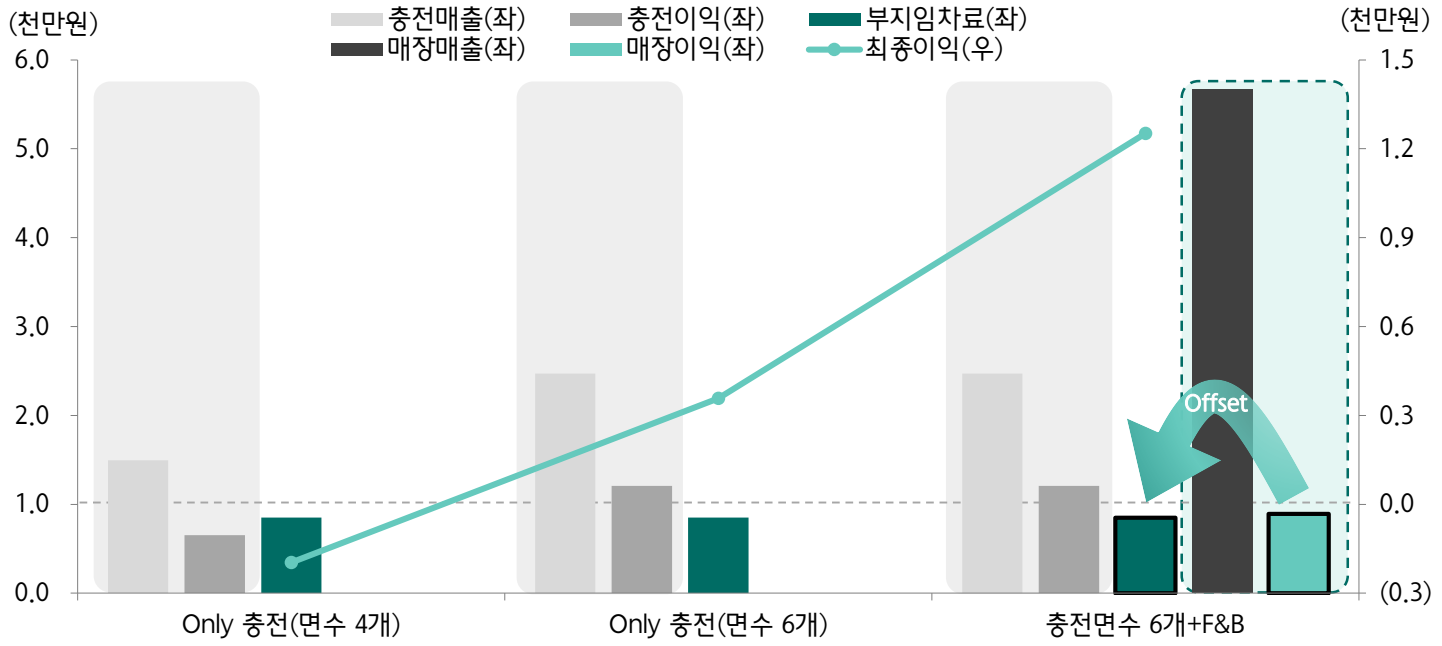
Tesla 충전 스테이션 조감도

자료: Forbes

장기임대차 역량 통한 진입 장벽 구축 필요

- 현재 3%대인 EV 보급률 하에서 서울 도심 내 충전 면수 4개의 급속충전소 평균 충전 이익은 부지 임차료를 넘어서기 어려움
- 충전 면수를 늘려 서울 도심지 핵심 부지를 선점해야 하나 초기투자비,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 한계 뚜렷
- 이때 식당, 카페 등 음식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부지 임차료를 커버, 장기임대차 계약 통해 서울 핵심 부지 선점 가능
- 도심지 핵심 충전소를 휴게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확보 가능, 나아가 수전(받을 수(受) + 전기 전(電)) 한계로 선점 효과 뚜렷

충전 네트워크 형태별 충전소 1개당 손익 구조



자료: 하나증권

제조+CPO+급속 역량 극대화 위한 장기임대차 역량 필요

-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한 키워드 : 제조/CPO/급속 수직 계열 통합 및 장기 임대차 해자 구축
- 국내 급속 충전 CPO 시장 점유율 1위 Chaevi 대표적 사례
- 상기한 F&B 비즈니스 등 통해 고객들에게 20~30분 동안의 경험 가치 제공하는 Chaevi Stay 매장 운영 및 확장 지속

채비 충전 네트워크 현황

자료: CHAEVI

F&B 사업과 결합한 채비 충전 네트워크(Chaevi Stay)

자료: CHAEVI

CPO 사업 특성상 내수 기업 유리

- 전기차 충전 사업의 경우, 충전기 설치 관련된 보조금 및 규제 정책 국가별로 크게 상이
- 사업 수익성 극대화 위해서는 주요 위치 선점 및 F&B 비즈니스와의 통합 필요한데, 이는 내수 기업이 유리
- 따라서, 한국, 미국, 유럽, 중국 등 주요 시장별로 내수 CPO 기업들이 해당 국가 내 시장 점유율 높일 것으로 판단

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 규정

항목	주요내용
설치 대상지 확인	• 설치 수요 판단 기준: 100세대 이상 아파트,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 등 (※ 대상지 여부에 따라 공급 우선순위 및 사업성 판단 가능)
설치 비율 기준	• 신축 및 공공기축시설: 주차면수의 5% 이상 • 기축시설(2022.01.28 이전 허가): 2% 이상
설치 기한	• 공공시설: 2023.01.27 • 공중이용시설: 2024.01.27 • 아파트: 2025.01.27 → 불가피한 경우 2026.01.27까지 연장 가능
단속 및 이용 제한 규정	• 사업자는 충전방해, 훼손, 과다 점유(1시간/14시간 초과), 비충전 차량 이용에 대한 현장 관리 및 안내 필요 • 과태료 발생 시 이용자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필요
벌칙 및 제재 사항	• 충전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최대 3,000만원 부과 • 충전구역 관리 미흡 시 이용자에 과태료 (최대 20만원) 발생 가능
예외 인정	• 재건축 예정지 및 지자체가 설치 곤란 인정 시 설치 면제 가능 → 협의 필요
기존 충전기와 충전 수요 간 비교	•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 수 > 등록 전기차 수인 경우 → 내연기관차 충전구역 주차에 과태료 없음 → 추가 설치 수요 낮음 가능성 고려

자료: 하나증권

전기차 충전 시설 보조금 가이드라인 및 우선 설치 정책

항목	주요내용
보조금 지원 대상	• 공동주택(아파트 등) • 사업장 •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및 운영자 (※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)
보조금 지원 금액	• 30kW 이상 충전기: 1기 설치 시 최대 700만 원 지원 • 11kW 이상 충전기: 1기 설치 시 최대 240만 원 지원 • 7kW 이상 충전기: 신규 설치 시 1기당 최대 220만 원 지원 (※ 설치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적용)
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	• 기존 LPG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를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거나 복합스테이션을 구축하는 경우 •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, 졸음쉼터 등 이동거점에 설치하는 경우 • 물류센터, 택배사 등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하는 경우 •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(K-EV100)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
신청 방법	• 완속충전기: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• 급속충전기: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
유의 사항	• 충전기 설치 후 유지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 •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 확보 등 설치 요건 충족 필수

자료: 하나증권

배터리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

- 배터리 충전 사업자들의 경우,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충성 고객층 확보 시 충전 이력 데이터라는 강력한 무형 자산 확보 가능
- 충방전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 열화의 주요 원인 및 셀 설계 최적화, 고장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영역
- 따라서 상기한 수직 계열 통합 통해 배터리 데이터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추가 현금흐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주목 필요

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의 중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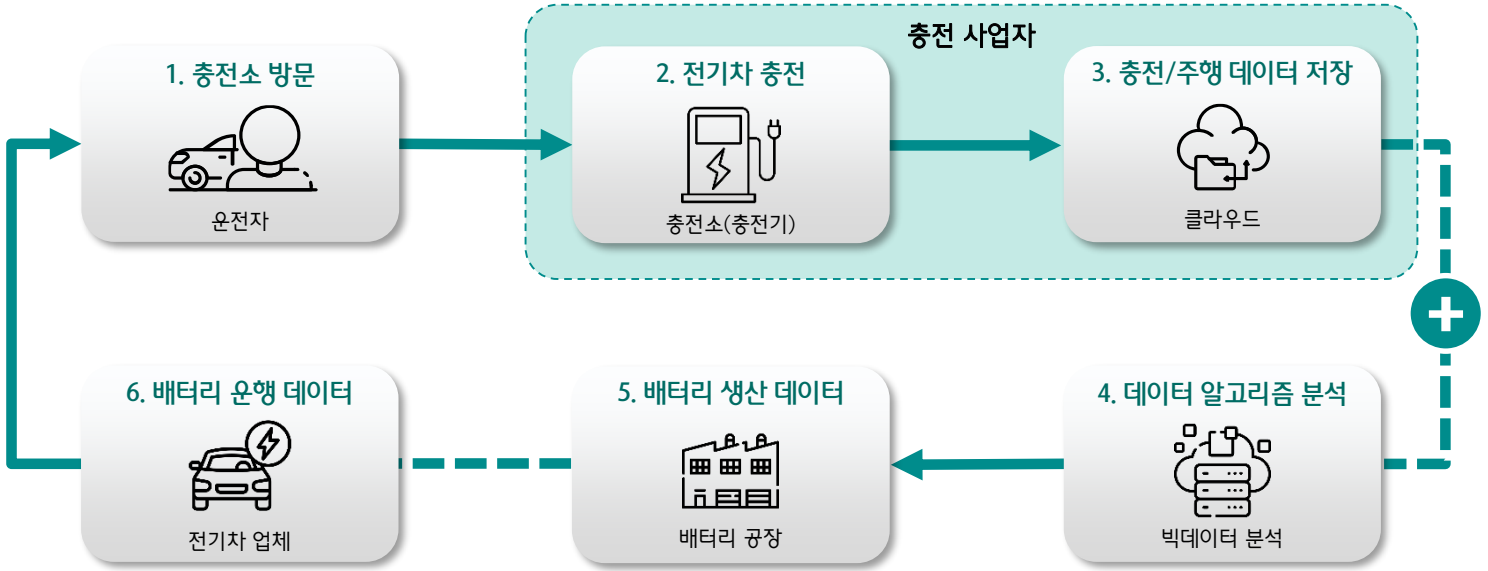
항목	활용
배터리 수명 및 성능 관리	• 충방전 패턴(예: 급속 충전 빈도, 완속 충전 비율)을 기반으로 배터리 열화의 주요 원인 분석 • 충전 습관을 분석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충전 전략 제안 •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SoH(State of Health) 변화를 추적해 배터리 품질 개선
배터리 설계 및 최적화	• 다양한 환경에서의 충전 데이터(온도, 주행 스타일 등)를 활용해 셀 및 BMS 설계 최적화 • 지역·기후·운행조건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실증 기반으로 분석
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예측 유지보수	• 충전 이력 및 주행 패턴 분석 → 고장 예측, 사전 유지보수, 리콜 위험 감소 • 배터리 이상 징후 조기 감지 및 경고 시스템 구축
2차 사용(Second-life) 및 재활용 전략	• 충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잔존 가치 평가 • 어떤 배터리는 ESS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고, 어떤 배터리는 재활용해야 하는지 판단
비즈니스 및 정책적 가치	• 충전 패턴과 사용 행태 분석을 통해 전기요금제 설계, V2G(Vehicle-to-Grid)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• 배터리 사용 기반 보험(Battery-as-a-Service, BaaS) 모델 실현
표준화 및 규제 대응	• 충전 데이터는 안전 기준이나 보증 조건 설계의 근거로 사용 • 규제기관이나 OEM, 배터리 제조사 간 데이터 기반 협업

자료: 하나증권

배터리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후 관리 역량

- 전기차 충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배터리 제조 역량 개선 가능
- 향후 전기차 및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충전 데이터 접근 시도 증가 전망
- 이 과정에서 상기한 수직 계열 통합 통해 충전 사업 선정한 기업들의 기업가치 증대 전망

충전 빅데이터 활용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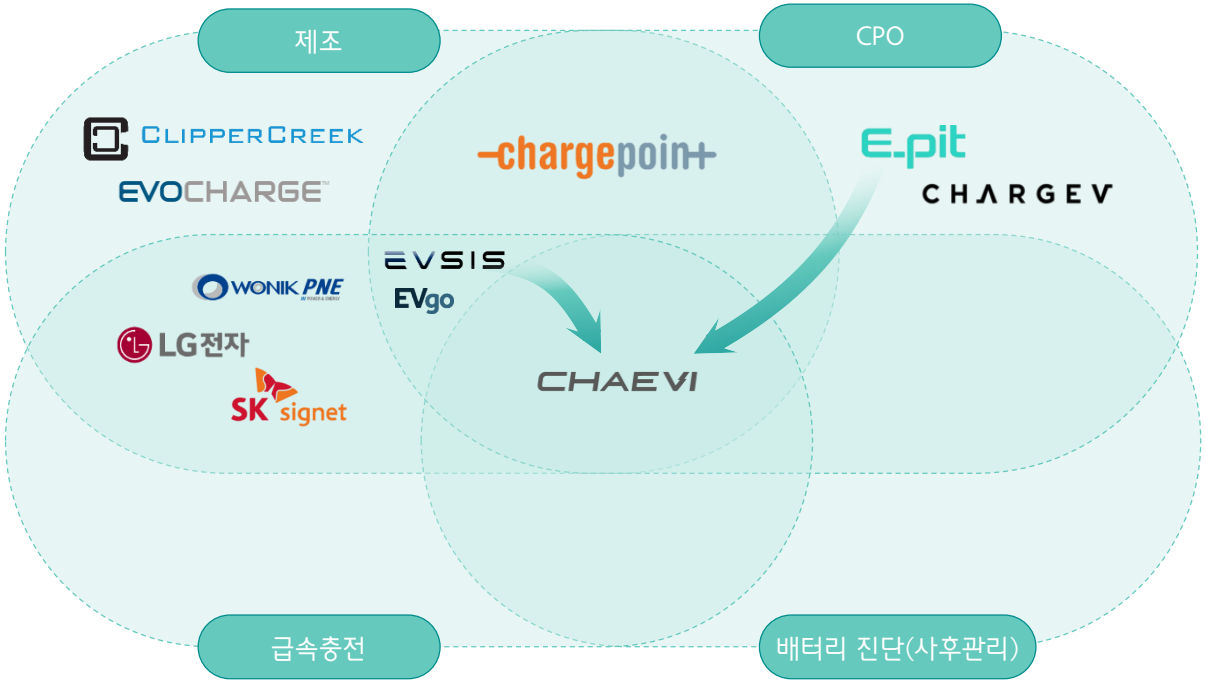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플라스틱사이언스, 하나증권

전기차 충전 사업의 성공 방정식 : 제조 + CPO + 급속충전 + 배터리 진단(사후관리)

- 발상의 전환 필요, 제조+CPO+급속+배터리진단(사후관리)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충전사업의 본질이 “EV 밸류체인” 전체로 확장됨
-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의 생존을 위해, 제조 영역에서 서비스(CPO)로의 수직계열 통합이 요구됨
- 제조+CPO 통합은 급속 충전의 영역에서 그 장점이 극대화되며, 이 때 해자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임대차 역량 요구됨
- 장기 임대차 비즈니스 해자 구축 위해 배터리 진단 및 사후 관리 역량 극대화 필요, 이 때 사업의 본질은 EV 밸류체인 전체로 확장

기업별 충전 사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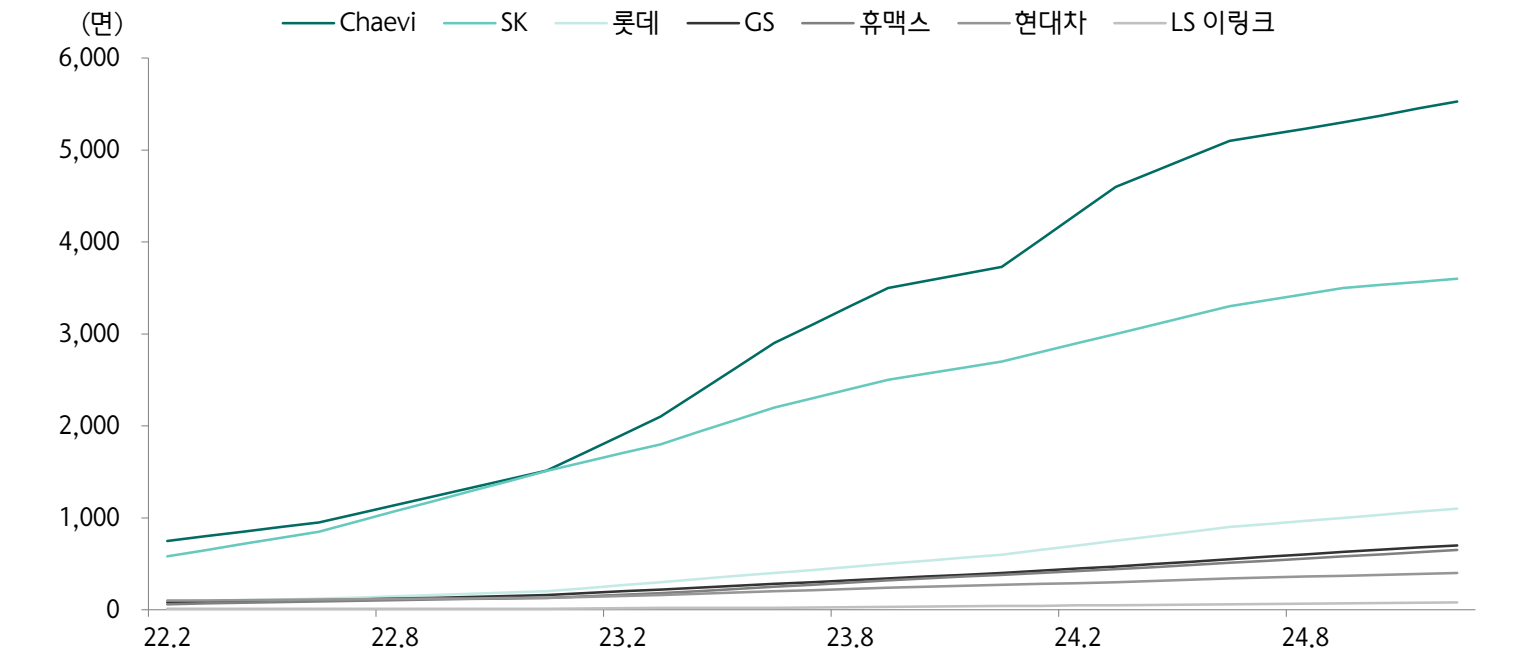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하나증권

4가지 성공 키워드 및 장기 임대차 해자 구축한 기업들 성장세 지속

- 실제 급속 충전 면수(충전 가능한 자리(면)의 개수) 역시 상기한 키워드들의 통합 강도에 따라 차이 뚜렷
- 수직 계열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인 Chaevi, SK, 롯데가 시장 내 선두권 형성하며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
- 현재 급속 충전 면수 점유율 1위 사업자는 Chaevi

국내 민간 기업 급속 충전 면수 기업별 추이



자료: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

서브 이슈 : 통신 프로토콜의 중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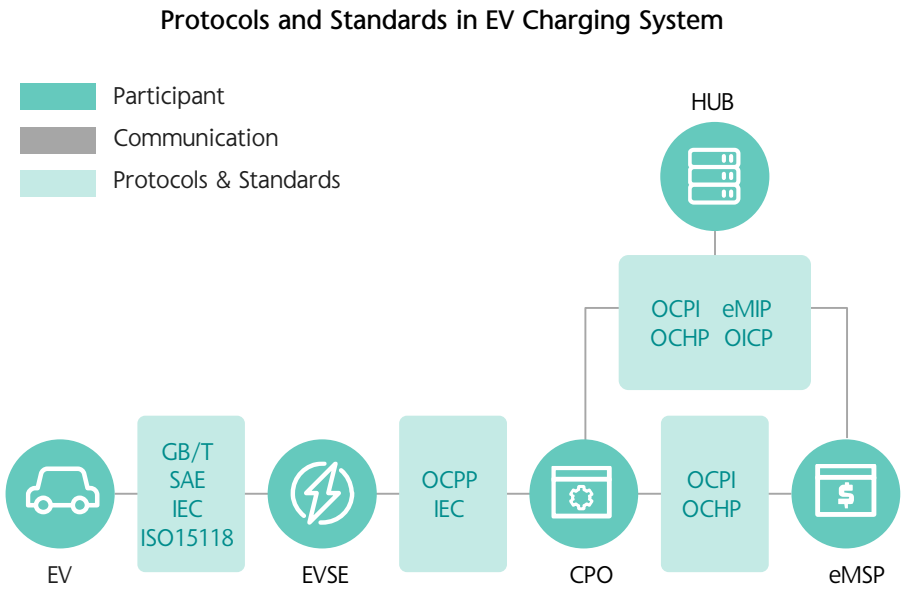
- 전기차 충전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 역량 필요
- 충전기 상태 모니터링, 고장 진단, 원격 업데이트,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향상 가능
- 나아가 향후 전력망 수요 응답(DR), 부하 조절, 태양광 연계, 미래 지향적 EV-Grid 연동을 위해서도 통신 프로토콜 역량 필요

전기차 충전 통신 프로토콜의 중요성

항목	주요내용
상호 운용성 확보	• 전기차 제조사, 충전기 제조사, 운영사들이 다르기에 표준화된 프로토콜 없이는 충전 시스템 간 호환 어려움 • 프로토콜을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브랜드와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음
원격 제어 및 데이터 수집	• 충전기 상태 모니터링, 고장 진단, 원격 업데이트, 전력 사용량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함 •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킴
과금 및 인증 기능	• 사용자 인증, 요금 청구, 결제 기능 연동을 위해 충전기와 백엔드 간 정확한 통신 필요 • 특히 로밍(다른 사업자 충전기 사용)에는 통신 프로토콜이 필수적임
스마트 그리드 연동	• 전력망 수요 응답(DR), 부하 조절, 태양광 연계 등에 통신 필요 • 미래 지향적 EV-Grid 연동 위해 필수적임

자료: 하나증권

Protocols and Standards in EV Charging System



자료: Tridens Technology

서브 이슈 : 통신 프로토콜의 중요성

- 특히 상기한 제조+CPO 수직 계열 통합 기업의 통신 프로토콜 역량 확보했을 때 시너지 극대화
- 하드웨어-소프트웨어 최적화 : 제조와 운영을 동일한 기업이 담당함으로써 충전기와 백엔드 시스템 간 통신 문제를 최소화 가능
- 현재 충전기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통신 문제로 인한 충전 오류이므로 해당 역량 확보 필수

전기차 충전 통신 프로토콜의 중요성

항목	내용
하드웨어-소프트웨어 최적화	• 완벽한 호환성 보장: 제조와 운영을 동일한 조직에서 관리하여, 충전기와 백엔드 시스템 간 통신 문제 최소화 • 속도와 안정성 향상: 데이터 전송 속도나 오류 처리 로직을 충전기의 펌웨어 수준까지 최적화 • 예시) 고속 충전 중 중단 현상, 인증 지연 등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빠르게 수정
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	• 원격 진단 및 예지 정비 기능 강화: 충전기 내부 데이터 정밀 수집 및 분석 • 유지보수 비용 감소: 외부 프로토콜 업체나 솔루션 벤더에 의존하지 않아 운영비 절감 • 개발-운영 간 피드백 루프 단축: 현장 이슈 신속히 개발에 반영
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	• 전용 앱, 결제 시스템과 통신 연계 강화: 고객 경험을 세밀하게 설계 • 신속한 플러그 앤 차지(Plug & Charge): 자사 차량, 자사 충전기, 자사 플랫폼 기반으로 충전과 결제 속도 개선
미래 확장성 확보 (V2G, 스마트그리드 등)	• ISO 15118 기반의 V2G 구현 용이: 전력망과 연계되는 고급 기능까지도 충전기-서버 간 연계로 자체 구현 • 에너지 관리 시스템(EMS)과 통합 용이: 자사 통신 규약을 유연하게 변경하거나 확장
경쟁력 있는 솔루션 수출 가능성	• End-to-End 솔루션 수출: 충전기 + 운영시스템 + 통신 프로토콜이 통합된 패키지로 해외 진출 시 경쟁력 확보 • 프로토콜 독자 기술력 보유: 글로벌 OCPP/ISO 15118 기술 표준에 기여(브랜드 신뢰도 상승)

자료: 하나증권

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추가 현금흐름 창출 능력 확보 가능한 기업들 생존 전망

- 한국의 전기차 충전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, 향후 산업 성장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키워드는 제조+CPO+급속충전+배터리진단
- 상기 4가지 역량 수직 계열 통합과 장기 임대차 해자 구축 통해 수익성 극대화 하고 현금흐름 창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생존 전망
- 이와 함께 충전 프로토콜 및 데이터 활용 능력 뛰어난 기업들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장성 높다고 판단

전기차 충전 사업 경쟁 우위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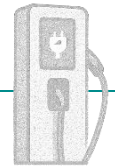
◎ : 뛰어남 ○ : 보통 △ : 부족	SK시그넷	원익피앤이	EVSIS	Chaevi	EVgo	ChargePoint	E-pit	GS차지비
충전기 제조	◎	◎	○	◎	△	△	△	○
Charge Point Operator	△	△	◎	◎	◎	○	△	◎
급속 충전	◎	○	◎	◎	○	△	△	○
장기 임대차	△	△	△	◎	△	△	△	△
충전 데이터	△	△	△	○	△	△	◎	△
충전 프로토콜	△	△	△	◎	△	△	○	△

자료: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현수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당사는 2025년 4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현수)는 2025년 4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

- **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**
- **기업의 분류**
  BUY(매수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  Neutral(중립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~15% 등락
  Reduce(비중축소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하락 가능
- **산업의 분류**
  Overweight(비중확대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  Neutral(중립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  Underweight(비중축소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
투자등급	BUY(매수)	Neutral(중립)	Reduce(매도)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율	94.50%	5.50%	0.00%	100%

* 기준일: 2025년 04월 14일